

동아리플러스+

가족공예동아리 ‘레더라운’

사하구에는 가족공예를 하는 동아리 ‘레더라운’이 있다. ‘라운’은 ‘즐거운’이라는 뜻의 순수 우리말로 ‘레더라운’은 가족공예를 즐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원들은 지난 2019년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가족공예 2급 자격증반에 등록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동아리를 설립하였다. 회원은 현재 11명이다.

레더라운은 2개월에 한 번 모여서 작품 선정과 제작 과정을 의논해왔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19로 한 번 하고는 중단된 상태다. 동아리 레더라운은 작년에 사하구 성과공유회에 참여하여 가족팔찌 만들기 체험교실을 열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구민이 본인이 직접 만든 팔찌를 손목에 차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다고 한다. 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랑의 집에서 재능기부 활동도 하였다. 사실 처



음에는 장애인인 집중하면서 제대로 따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막상 수업을 해보니 반갑게 맞이해주는 순수함과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는 열정을 보고 강사들이 더 고마움을 느꼈고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양인순 총무는 다대동 낮개작은도서관에서 주 1회 수업을 하고 있으며 하단동 청구아파트 상가에서도 주 1회 배달강좌를 하고 있다. 만들고 있는 작

품은 부엉이 열쇠고리, 명함 케이스, 카드지갑, 미니 가방 등이다. 수강생들은 연령대가 주로 40~60대로, 자기가 만든 완성품을 보고 기뻐하면서 높은 성취감으로 귀가한다. 가족공예를 하기 위해서는 망치, 송곳, 본드 외 여러 작업 도구가 필요하다. 회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수강생들에게 빌려주어 도구 구입에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은 롤 단위로 판매하는데 가격이 비싸고 종류가 많다. 작품에 따라

서 여러 가지 색깔을 구입해야 하므로 개인이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동아리 회원들이 가족 구입과 재단을 해준다. 이상경(41세 · 괴정동) 레더라운 회장은 “전에 가족공예를 배운 경험이 있어서 관심이 많아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금은 좀 바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양인순 총무(52세 · 신평동)는 “핸드메이드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기쁨을 재능기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하루속히 코로나 19가 완화된여 남녀노소 누구나 가족공예를 배워서 내가 만든 가족소품을 선물도 하며 이웃의 정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김필본 평생학습구민기자
shjpbun@naver.com

평생학습관 상반기 프로그램

지금 오셔도 됩니다

4개 강좌 수강생 모집 중

3월 3일부터 비대면으로 강의를 시작한 2021년 사하구 평생학습관의 상반기 프로그램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온오프 혼합과정 강좌도 코로나의 위중함으로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배움의 열기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 중 4개의 강좌가 개강을 준비 중이다. ‘샌드아트지도사 2급’ 과정은 4월 6일에서 5월 11일로 개강이 연기되었고 ‘위기탈출! 구민 생활 안전교육’, ‘육지와 바다를 품은 부산 그리고 인문학’, ‘지구를 부탁해 환경교육 & 리사이클링 공예가족’의 온라인강좌는 예정대로 열릴 계획이다. 유익하고 즐거운 강좌에 관심 있는 구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운영체제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시간
온오프라인 혼합과정	샌드아트지도사 2급	5.11.~7.29. (화.목)	11:00~13:00
zoom	위기탈출! 구민생활 안전교육	6.11.~6.25. (금)	10:00~12:00
zoom	육지와 바다를 품은 부산 그리고 인문학	4.26.~5.31. (월)	19:00~21:00
zoom	지구를 부탁해 환경교육 & 리사이클링 공예	5.15.~5.22. (토)	10:00~12:00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관 051-220-5546~7

박강균 평생학습구민기자
alberto1@hanmail.net

민들레꽃이 피었습니다

색연필 일러스트 & 펜 풍경화 생활 소품 제작



코로나로 방콕이 많아진 요즘. 방콕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사하구 평생학습관의 인기 강좌를 수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온·오프라인 혼합 과정으로 ‘색연필 일러스트 & 펜 풍경화 생활 소품 제작’ 수업이 대표적이다. 3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9시 10회로 수업이 진행 중이다. 취재자 방문한 날은 첫 수업이라 그런지 수강생은 다소 경직된 모습이었다. 마스크를 쓰고 가림막이 있는 상태에서 수업이 열렸다. 강사는 20개 이상의 민들레 꽃 모양이 그려진 도안을 나눠 주면서 어떻게 그려야 예쁜 꽃이 되는지 직접 그려가며 설명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수강생의 눈빛은 강사의 설명에 집중하며 빛나고 있었다. 일흔을 갓 넘긴 어르신은 씩스러운 표정으로 그림을

김미연 평생학습구민기자
01hanthis@naver.com

잘 그리지 못한다고 하며, 더 진지한 모습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어떤 수강생은 20개 남짓의 민들레를 다 그리겠다는 열정으로 강사가 설명하지 않은 것까지 열심히 그렸고, 다른 수강생은 하나의 민들레에만 온갖 정성을 쏟아내고 있었다. 수업 중에 질문하는 수강생에게 강사는 일일이 답변해 주었다. 강사는 수강생이 잘 따라오는지 점검하면서 수업을 매끄럽게 진행했다.

펜과 색연필로 풍경과 사물을 그리는 수업은 벚꽃, 여인과 새, 여행지에서 본 풍경 그리기 등 다양한 주제로 가득했다. 과정 중간쯤에는 가방, 머그잔과 스카프에 펜으로 그림을 그린 생활 소품을 제작한다. 작품은 10월 사하구 평생학습 성과공유회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 수업의 청일점인 이인호(47세·당리동) 씨는 “우연한 기회에 수업을 알게 되었고, 어릴 적 만화를 그렸던 추억을 되살리면서 참여하게 되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여행을 다녀온 장소를 사진보다는 그림으로 남겨 두고 싶다”고 말했다. 평생학습관의 수업을 계기로 우드버닝 강사로 활동하는 박정희(51세·괴정동) 씨와 김민애(47세·괴정동) 씨는 취미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과 주민 강사로도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수업의 민들레꽃은 최선을 다하는 수강생이었다.

NEWS 사하구평생교육신문

사하배움마당

VOL.30

발행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전화 : 220-4801~6 팩스 : 220-4809 발행일 : 2021. 04 . 20.

중년 남성을 위한 저녁강좌 열린다

‘男다른 신중년 아카데미’ 5월부터 시작

사하구는 5월부터 중년남성을 위한 강좌 ‘男다른 신중년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남성인구가 많은 사하구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강좌는 관계 개선과 스피치, 이미지메이킹, 재테크, 건강관리법은 물론 영상제작, 산야초 등 남성들에게 특화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男다른 신중년 아카데미’는 남성 비율(50.1%)이 높고 그중에도 중장년층(50~64세)의 연령분포가 큰 사하구의 특성에 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여성 학습자의 참여(82%)가 많아 남성들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 시도이다. 또한 평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주간에 이루어져 직장 등으로 인해 평일

낮 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남성들을 고려해 야간시간에 운영된다. 또한 이번 기초과정 후에는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와 병행한 심화과정을 계획 중이며 심화과정은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수준 높은 시민교육과 인문학 등을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男다른 신중년 아카데미는 공통과정과 선택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공통과정은 5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9시에 열리며 자기 이해와 관계 개선, 자존감 회복을 위한 스피치, 이미지메이킹, 재테크, 남성 질환과 건강관리, 기후 위기와 응급처치, 사회 환원과 학습공동체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과정 이수 후에는 2개의 선택과정 중에 1개를 선택한다.

첫 번째 선택과정은 영상미디어학부 8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9시 24회 운영된다. 이 과정은 ‘블랜드드 콘텐츠 영상제작 과정’으로 스토리가 있는 간접홍보영상 촬영 및 편집기술 등을 배운다. 두 번째 선택과정은 자연친화학부이다. 8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24회 운영된다. 산야초의 종류와 활용, 전통주 빚기, 생태계 교란종의 종류와 관리 등에 대해 학습하며 일요일에는 야외 실습도 3회 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수강 신청은 5월 중에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saha.go.kr/edu)에서 가능하며 교육 장소는 사하구 평생학습관이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50+(50~64세 중장년층) 세대와 은퇴 세대를 위한 개인의 성장과 제2 인생 도약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강좌는 다양한 강좌와 플랫폼,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기에 적절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별이 빛나고 달빛 가득한 밤에 함께 배우고 즐기는 ‘男다른 신중년 아카데미’에 참여하여 우리의 삶과 배움이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한다. 문의 : 사하구 평생교육과 051-220-4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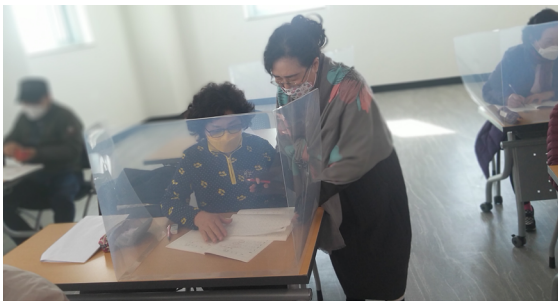
박강균 평생학습구민기자
alberto1@hanmail.net

요즘엔 배달강좌가 대세

아동책놀이 수업, 낮개도서관서 열려 ‘호응’

찰칵! 학습현장

‘밤에 잠은 안자고 공부만 합니까’



한글을 아는 것은 숨을 쉬는 것과 같다. 평생학습교실이 다시 열리면서 그동안 한글을 배우지 못해 답답했던 학생들의 가슴이 풀리고 있다. 코로나 19로 강사와 학생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가운데 투명 가림막이 설치된 책상에서 받아쓰기를 한 후 지난 시간에 받은 숙제와 받아쓰기를 강사에게 검사받고 있다. 학생들은 배우고 싶었던 한글을 공부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은 나머지 강사가 내어준 숙제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해오곤 해서 검사받을 때마다 강사를 놀라게 한다.

김필본 평생학습구민기자
shjpbun@naver.com

다대동 낮개작은도서관은 화요일 오후 5시가 되면 5세 아이들의 목소리로 가득 찬다. 이곳에선 3월부터 4월까지 ‘아동책놀이’ 수업이 배달강좌로 진행되고 있다. 아동책놀이 수업은 단순히 동화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에 나오는 소재로 놀이활동으로 이어진다. 취재를 갔던 4번째 수업시



간에는 ‘보자기야 놀자’라는 동화로 수업이 열렸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동화를 듣고 있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녀와서 들은 수업이라 피곤할 법도 한데 음악과 함께 나오는 이야기에 제법 귀 기울였다. 책상에는 보자가가 다양한 모양으로 변신하는 이야기가 담겨있었다. 강사는 보자가가 옛날에는 책가방으로, 밥상덮개로 쓰였다는 말과 함께 오늘의 놀이활동을 소개했다. 보자기로 장바구니를 만들어 물건을 담아보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종이 화페로 과자와 초콜릿을 사고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동화를 듣기만 할 때 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흥미 있어 보였다. 소규모의 배달강좌에 어울리는 수업이었다.

수강생 아동의 엄마 최혜진(33세·다대동) 씨는 평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해서 배달강좌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친분이 있는 아이들 엄마 7명과 뜻을 모아 배달강좌를 신청했다. 친한 아이들끼리 수업을 하면 자칫 산만해질까봐 엄마들이 한 명씩 돌아가며 도우미 역할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원소영(42세·다대동) 씨는 “책놀이 수업을 하고 가면 집에서 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가 있는데 책놀이수업과 이어지는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배달강좌는 학습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주민강사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뜻이 맞는 5인 이상 모이면 신청할 수 있다.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는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 주는 배달강좌를 체험해보길 권한다. 문의 : 사하구 평생교육과 051-220-4804

김정숙 평생학습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흐드러진 진달래에 내 마음도 취하네

사하자연학교 길을 따라

<2> 승학산 숲소리길·물소리길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사하구는 자연을 배움터 삼아 생태 고우니 해설사들이 상세하고 재미있는 해설을 들려주는 사하자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사하배움마당>은 사하자연학교 코스를 직접 따라가 보며 체험하는 기회를 시작한다. 각 탐방코스의 매력을 소개하고 사하의 자연을 느껴보고자 한다.

봄별이 완연한 날, 뿔뿔이 활짝 핀 승학산을 찾았다. 승학산 자연학교 탐방 코스는 숲소리길과 물소리길 2개가 운영되고 있다. 올라갈 때는 숲소리길, 내려올 때는 물소리길을 따라 걷기로 했다.

승학산 사하자연학교 탐방을 시작하기 위해 마을버스 2번 중점에서 내렸다. 탐방을 함께하기로 한 사하자연학교 탐방 참가자들과 만나 작은 공터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테크길을 따라 산을 올랐다.

▲올라갈 땐 숲소리길 = 산길로 접어드는데 활짝 핀 야생화들이 먼저 반겼다. 엄마 아빠와 같이 체험을 온 아이들이 마음은 들뜨고 호기심은 가득했다. 생태고우니 김현순 강사의 강의가 시작됐다. 꽃잎을 하나씩 떼어 루페로 들여다보는데 암술과 수술이 선명하게 보였다. 별처럼 생긴 개별꽃을 찾아 뿌리를 뽑아 물로 씻어 먹었다. 태자삼이라고 불리는 개별꽃은 사포닌이 포함되어 있어 옛날 궁궐의 태자들에게 먹였다고 한다. 먹어보니 사포닌 향이 났다.

승학산은 고려 때 무학대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산세를 살피다가 이곳에 이르러 산의 형상을 보고 마치 학이 기운차게 활동하는 듯한 모습에 승학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승학산 숲소리길은 계곡을 끼고 테크길을 따라간다. 가다 보면 물을 좋아하는 식물과 곤충을 관찰할 수 있다. 지금은 봄이라 야생화들이 서로 얼굴을 내민다. 산언저리에 핀 진달래가 어릴 적 추억을 떠오르게 했다. 먹거리가 부족하던 시절 내가 자랄 때에는 진달래를 많이 먹었다. 좀 먹다보면 헛바닥이 열리는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친구들과리 서로 바라보며 웃던 시절이 떠올랐다.

부산일과학교 옆 폭포쉼터에는 계곡산개구리와 도롱뇽이 알을 낳았다. 아직 부화하지 못한 개구리와 도롱뇽도 있었다. 알에서 깨어난 귀여운 올챙이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올챙이를 보고 신기해하며 서로 가지려고 야단이다. 개구리와 도롱뇽은 양서류다. 양서류는 물에도 살고 물에도 산다. 도롱뇽은 입이 작아 작은 곤충을 잡아먹고 야행성이라 밤에 활동하며 물갈퀴가 없어 낙엽 속에서 생활한다. 올챙이는 아가미가 몸 안에 있고 도롱뇽은 아가미가 몸 밖에 있다고 한다. 알은 떠내려가지 않게 돌 같은 곳에 끈끈이로 딱 붙어있다. 생태계가 정말 신기했다. 그 옆에는 가래나무 군락지가

있었다. 가래나무 열매들이 떨어져 뒹굴었다. 뒹구는 열매를 주워서 껍질을 깨어 알맹이 맛을 보니 호두맛과 비슷했다. 가래나무 열매는 호두와 많이 닮았다. 껍질도 두껍고 알맹이 생김새도 비슷하며 크기만 호두보다 좀 작을 뿐이다.

▲내려올 땐 물소리길 = 야생화 체험을 하고 물소리길로 내려왔다. 활짝 핀 수선화와 개복숭아꽃이 눈을 즐겁게 했다.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더욱 시원하게 느껴진다.

사하구 장림동에 사는 서에스터씨는 “강사의 설명이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책만 읽다가 직접 와서 보니 자연하고 더욱 가까워져서 좋은 것 같다.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갇혀 있다가 밖에 나와 자연을 보니 안정감이 느껴진다.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 소통해서 좋은 것 같고 하나하나 새로운 야생화를 알아가는 게 재미있다”고 말했다.

폭포 쉼터에서 그날 체험한 것을 작은 가방에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모와 아이가 한마음이 되어 그리는 모습은 휴대폰만 보면서 각자 생활하는 요즘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달랐다.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자주 근교에 나가 자연과 즐겼으면 한다.

문의 : 사하구 평생학습관
www.saha.go.kr/edu
051-220-5546~7

이경녀 평생학습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승학산 자연학교>



<즐거운 자연학교 수업>



<갓 태어난 올챙이>



< 승학산 숲소리길 >

평생학습 러닝스타

세대를 아우르는 고미경 주민강사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제 수강생이죠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하구 주민강사 고미경(53세·신평동)씨는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열정의 소유자였다.

그녀가 평생학습관에서 처음 들었던 수업은 ‘문화관광해설사’이다. 처음 듣는 수업이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몰라 그때는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그때 조금 더 적극적이진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다고 한다. 그녀는 어떤 수업이 적성에 맞고 관심이 있는지 스스로 알기위해 여러 강의를 들었다. ‘파워스피치’

강의를 들었고 ‘배우는 배우다’ 동아리에서 연극도 해봤다. 다양한 경험들이 지금의 그녀가 강사활동을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 그녀는 오감을 자극해 영유아의 발달을 도와주는 ‘영유아오감발달 주민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노인건강운동지도사, 웃음치료사, 실버심리공예1급자격증, 동화구연자격증 등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열심히 살아온 그녀의 인생을 짐작케 한다. 힘들지 않았는지 물어보니 공부하는 동안 오히려 심란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 좋았

뽀뽀~배움터 사하구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치매가 의심된다면 곧바로 병원으로 가기 전에 방문해볼 만한 곳이 있다. 그곳은 까치고개에 있는 사하구 치매안심센터이다. 구민기자가 취재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이른 시간이었는데 카페식 휴게실에는 할머니 한 분이 벌써 와 계셨다. 이정영(73세·신평동) 할머니는 이전에 검사를 했는데 더 검사를 해보자는 전화를 받고 왔다고 한다. 간호사가 할머니에게 부드럽고 친근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고 검사실로 모셔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웬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엄정희 주무관은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송영’서비스를 소개했다. 송영서비스는 지하철 거점지역에서 차로 어르신들을 모셔오고 다시 모셔다 드리는 차량서비스라고 말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 생각되어 송영이란 말을 한 번 더 새겼다.

치매안심센터는 2층과 3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2층에는 사무실과 3개의 상담실, 휴게실이 있고 3층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실이 있다. 2층 상담실에서는 치매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정도에 따라서 총 3단계에 거쳐 검사와 진단을 받는다. 3층 프로그램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치료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심리교실로 사용되었다. 주3회 오전, 오후반으로 인기도 많고 참여도 높은 수업이었다. 특히 치매환자심리교실은 서로 간의 교류로 우울증과 정서적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손발 협업 운동을 위한 VR(가상현실) 장비와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위한 컴퓨터는 전원이 꺼진 지 오래다. 몇 개의 구에서만 특화된 두드림 운동 교실과 텃밭 가꾸기 사업도 안타깝게 중단되었다. 지금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지 활동지를 만들어 집까지 배달한다. 일주일 뒤에 수거하여 전화로 피드백을 하고 있다. 우리 삶의 끝은 죽음이라 아니라 치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러나 치매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일 수 있다고 한다. 치매를 아는 것을 넘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행동으로 사하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치매 어르신을 이해하는 첫 걸음으로 생각된다.

김민정 평생학습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동영상 만들어 재능나눔 활동으로

사하구 평생학습관 디지털 영상 제작 프로그램

영상제작 콘텐츠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하구 평생학습관 상반기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영상 제작반’이 개강했다. 이번 강좌는 영상제작을 단순히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재능나눔 활동으로 연계될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 강좌는 3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고 있다. 영상 제작의 기획, 촬영, 편집 기능 등을 배워 사하구의 평생학습을 알리는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수어동작으로 구현하는 동화책 영상을 제작하여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구민들이 함께 즐기도록 할 계획이다.

수업은 영상 제작과정의 기초이론과 영상 기획과 기획서 작성에 대해 배우고 촬영 이론과 스토리보드 작성으로 이어졌다. 2~3인이 조가 되어 촬영실습을 하고 영상편집은 핸드폰의 '키네마스터' 앱으로 기본을 익힌 후 노트북으로 '프리미어프로' 앱을 활용하는 수업으로 진행된다.

평생학습관에서 이뤄지던 수업이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각자 구상한 영상들을 온라인으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고 말한다. 긍정적인 생각이 그녀의 원동력 같았다.

그녀는 배우기를 망설이는 사람에게 “뒤편 배우세요. 배우다보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러다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됩니다”라며 용기를 북돋았다. 봉사활동과 강의로 바쁜 그녀는 올해는 영유아오감발달 수업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터뷰는 그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진행되었다. 긍정, 도전, 열정이 넘치는 고미경 주민강사의 경험이 누군가의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고미경 강사는 인터뷰 내내 쑥스러워하며 본인이 추천받을 자격이 없다고 겸손해했지만 인터뷰가 끝나자 우수 주민강사로 추천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열정. 그 열정이 모여 지금의 그녀가 된 것 같았다.

김정숙 평생학습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김민정 평생학습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